

왜 마약류를 남용할까요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서, 약물의 세계가 어떤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또는 주변 압력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자아나 가치 판단력이 결핍되어, 주변상황(전통, 가치, 문화, 권위 등)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허무와 권태로부터 향락을 추구하고자 약물을 남용한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번의 경험을 거친 후 그 같은 행위가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남용은 중단한다. 그러나 현실도피를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중단하기 힘든다.

1. 심리적 원인

가. 도피형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

로움 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약물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도피성 심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피심리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나. 대리만족형

억압된 성(性)적, 공격적, 자기 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 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의 세계에서나마 대리로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약물에 의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다. 자기애적 성격

자신을 특별한 인간으로 느끼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격이며 남의 비판에 대해 못 견디고 화를 낸다. 대인관계가 힘들고 남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약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



라. 구강기 성격

구강기는 태어나서 1~2년될 때까지의 시기로서 입을 통해 모든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동안 만족의 정도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형성된다. 이 기간에 형성된 지나친 모자관계(과잉보호 등)에서 발생하는 좌절을 약물을 통해 해결한다.

약물을 권유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쉽게 빠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통과 의례로서 당연히 한번쯤은 겪어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 사회적 원인

가. 사회부조화 현상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화현상때문에 아우리 노력해도 자신의 꿈을 이룩할 수 없다고 느낄때 마약류를 남용하게 된다.

나. 소외현상

산업화, 배급주의, 민주화, 빙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긴밀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붕괴되나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지 못해, 각 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를 남용하게 된다.

다. 친구관계

친구들 사이에 약물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든가, 친한 친구들이 약물을 사용하며

3. 마약류를 남용하는 과정

가. Wilford의 약물남용 5단계 진행과정

- 1) 약물사용에 대한 호기심
- 2) 약물 사용으로 인한 좋은 경험(high)
- 3) 다시 한 번 좋은 경험을 느끼기 위해 약물을 찾는다.(의존성)
- 4) 약물을 통해 얻어지는 좋은 경험을 느끼기 위해 집착(내성)
- 5) 다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좋은 느낌을 유지한다(금단현상)

나. Nizama의 코카인 중독 진행과정

- 1) 호기심
- 2) 사용으로 인한 좋은 경험(high)
- 3) 동료집단파의 소속감과 집단 명예, 이에 따라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짐
- 4) 성격장애적 행동이 발생하고 습관성
- 5) 약물의존 및 내성형성
- 6) 신체적으로 쇠퇴하고 인격이 붕괴